



바깥 어두운 데 있는 그리스도인들

www.DivineRevelations.info/KOREAN



Sister Liyan
리안자매

최근에 나는 하나님을 만나는 체험을 자주 하였다. 지난 몇 년 동안 있었던 경험을 함께 나누기 원한다.

나는 1996년 부터 주님을 알았고 그의 신실하심을 경험하고 있다. 나는 기독교 가정에서 자랐으며,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으나, 진정으로 나는 그분을 몰랐다. 예수님께 믿음을 둔다는 것은 그를 머리로 안다는 것과는 다른 것이었다. 사무엘상 3:7 에서, 사무엘은 성전에서 자랐지만 그는 주님을 실제로 알지 못하였다. 주님에 대한 그의 지식은 주님이 그에게 나타나시고 난 이후였다. 사무엘의 경우처럼 나도 1996년, 16살이 될 때 까지 몰랐다.



나는 어릴 때부터 어머니나 여동생과는 달리, 건강이 좋지 않았다. 나의 어머니는 집에서나 일터에서 의욕이 대단한 사람이었다. 그녀는 계속되는 나의 병 때문에 자주 내게 화를 내셨고, 동생은 건강한 데 비해 나는 왜 그렇게 자주 아프는지 이해하지 못하셨다. 나는 집에서도 요리나 아무 일을 하지 못하였던 것은 내가 자주 의식을 잃고 기절을 하기 때문이었다. 의사들은 검사를 통하여 나의

병명이 여러 가지인 것을 알아 내었다. 그러나 의사들도 나의 병을 치료할 수 없었다. 나는 그 병들로 인해 집안에서 조차 다니지 못하였으므로, 나의 어머니는 나를 구박하며 차갑게 대하셨고, 그것은 나를 더욱 고통스럽게 하였다.

내가 16살이 되었을 때도 여전히 집안 일을 도울 수가 없었고, 어머니는 나를 위협하곤 하셨다. 그녀는 “네가 만일 죽으려거든 다른 사람들 힘들지 않게 빨리 죽는 것이 낫겠다. 너를 봐라. 너는 이 세상에 아무 가치도 없다. 네가 스스로 죽지 못하거든 제대로 살아라. 우리가 너를 위해 뭘 해줄까?” 나도 나 자신을 위해 아무 해답이 없었다.

그 때 부터 나는 하나님께 기도하기 시작하였다: “하나님, 당신이 만일 정말 계시면, 제발 제 인생이 끝나게 해 주세요” 그리고 자살에 대해 계속 생각하였다 - 목을 매다는 것과, 독을 마시는 것과, 높은 빌딩에서 뛰어 내리는 것 등 - 그러나 그럴 때 마다 죽음에 대한 생각이 나를 두렵게 하였다. 나는 혼자서 “만일 자살이 실패하면?” 하고 생각하였다. 그럴 경우에는 상황이 더욱 힘들어 지기 때문이었다. 그래서 자살을 시도하지는 않았다. 그 후에 나는 성경 말씀을 떠올렸다. “누구든지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멸하시리라. 하나님의 성전은 거룩하니 너희도 그러하니라” (고린도후서 3:17). 그 말씀은 자살하는 사람은 구원 받지 못한다는 뜻이었다.

6월 1일, 나는 특별히 다르지 않는 늘 하던 대로의 기도를 드렸다, “하나님, 만일 당신이 실제로 계시면 제발 저의 인생을 끝내주세요, 제발 저의 영혼을 받아 주소서.”

어머니가 오후 3:30 즈음에 일하러 나가셨을 때, 나는 침대 옆에서 무릎 꿇고 앉아 끊임없이 기도하였다. 갑자기 나의 영혼이 나의 몸을 떠나, 내가 아직도 기도하고 있는 나의 육신을 보고 있었다. 나의 몸은 기도하다가 옆으로 쓰러졌다. 나의 영은 여기 저기를 다니며 머물러 있었다. 그때, 나는 두렵지 않았고 오히려 해방된 것처럼 자유로웠다. 그것은 내게 더 이상 몸의 통증이나 두통이 없었기 때문이었다. 지금 나는 성경에서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다는 말씀을 이해한다 (요한 복음 6:63). 나는 나의 육신에 다시 들어 가고 싶지 않았고 병든 몸에서 드디어 해방되었다는 느낌을 만끽하였다.

나의 영이 몸을 떠났을 때, 나는 당연히 천국으로 가고 있는 것으로 생각하였다. 그것은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 죽은 후에 천국가는 것이 보장되어 있다고 생각했기 때문이었다. 나는 또한 천국으로 가는 길은 위로 가는 것이며 지옥 가는 길은 아래로 간다고 알고 있었다. 나의 영혼은 창문 밖으로 날아가 하늘을 향해 계속 올라 가고 있었다. ‘와, 정말 굉장하군! 내가 이제 천국으로 가다니!’ 나는 가족이 하나도 그리지 않았다, 전혀!



바깥 어두운데

그러나 나의 영혼이 간 곳은 어두운 장소였다. 그 곳에 있는 어둠은 땅의 어둠과 달랐다. 그곳의 흑암은 나의 손이 보이지 않을 만큼 캄캄하였다. 나는 천국에 한 번도 가 본 적이 없지만, 그곳이 천국이 아님은 확실하였다. 천국이 그렇게 어두울 리가 없으며, 거기에는 온 통 빛으로 싸여 있을 것이기 때문이다. “아, 안돼!” 그러면 이곳이 지옥이란 말인가? 나는 그 장소가 어디인지 알 수 없었다. 내가 어릴 때 듣기로 지옥은 불과 유황으로 가득하다고 들었기 때문이었다. 그런데 그곳에는 불도 유황도 보이지 않았다. 나는 “여기가 어디지?” 하고 말했다. 그때 나는 수 많은 사람들의 울부짖는 소리를 들었다 (마태복음 25:30), 그러나 그들이 어디에 있는지 알 수가 없었다. 갑자기 어떤 목소리가 내게 말을 되풀이하고 있었다, “앞으로 가! 앞으로 가!”

나는 어둠으로 걸어갔다. 계속 걸어 가며 사람들의 울부짖는 소리가 가까이 들리자 나는 그들의 얼굴을 마주할 정도로 가까이 갔다. 그러나 여전히 아무 것도 볼 수 없었다. 그때, 나는 쇠사슬 소리를 들었으며, 자물쇠가 열리는 소리를 들었다.

갑자기 문이 열리더니, 안이 조금 밝아졌다. 나는 그곳에 수 많은 사람들을 보았는데, 그들이 모두 그리스도인들이라는 것을 알 수 있었다.

그때 내게 처음 떠오른 생각은 ‘기독교는 거짓이었다. 이 기독교인들은 천국에 하나도 올라 가지 못했다. 그들은 흑암으로 떨어졌으며, 이곳은 기독교인들로 가득 차 있다. 어떻게 이들 모두가 여기에 있을 수 있단 말인가? 그 중에는 내가 살던 동네에서 잘 아는 기독교인 여인들도 있었다. 그러나 그들은 모두 여기에 왔다. 그리고 한 목소리가 내게 말하였다: “안으로 들어 가라.” 나는 대답하였다, “안돼! 나는 이곳으로 절대 들어 가지 않을거야.” 나는 내가 이곳에 한 번 들어 가면 나도 이 죽은 무리들과 함께 영원히 울부짖게 될 것이다. 그곳에 있는 사람들은 끊임없이 소리치고 울부짖었으며, 그들의 웃은 잿 빛으로 너털 너털하게 다 떨어져 있었다.

그때, 내가 알지 못하는 힘이 나를 안으로 밀어 넣었으나, 나는 결사적으로 문에 달라 붙어 있었다. 나는 그 안으로 들어 가기를 거부했으며 무릎을 꿇고 큰 소리로 부르짖었다. “주님, 다시는 죽게 하 달라고 기도하지 하지 않겠습니다. 제발 제 생명을 돌려 주시고 다시 살아 나게 해 주세요. 만일 제가 여기서 나가면 병에 고생하면서라도 땅에서 살겠습니다. 왜 제가 여기에 와야 하나요?” 그때까지 내게는 마음에 떠나지 않는 의문이 있었다: ‘천국과 지옥이란 곳은 없을지도 모른다. 모든 것이 거짓말이다. 땅에서 예수님은 믿는 것 처럼 보였던 사람들이 모두 여기에 와 있다. 천국이나 지옥이 없는지도 모른다.’



나는 “도대체 여기가 어디지?” 하고 말했다. 그러자 갑자기 한 목소리가 내게 말하였다: “이곳은 ‘이를 갈며 슬피 우는 곳’이다.” 목소리는 들렸지만 그의 얼굴은 볼 수 없었다. “뭐? 이곳이 ‘슬피 울며 이를 가는 곳’이라고? 그렇다면 어떻게 해서 여기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그리스도인들이란 말인가?” 그는 대답하기를 “이들은 예수를 믿되 회개하지 않았다.” 내가 다시 물었다, “그러면 믿지 않는 자들은 어디로 가나요?” 그는 “그들은 지옥으로 곧장 간다.” 라고 대답하였다. 갑자기 나는 지옥으로 곧장 가게 될 것이라는 것을 알았다.



지옥

불신자들이 있는 끔찍한 장소는 회개 없이 예수님을 믿었던 자들이 있는 곳과 비교할 수 없었다. 나는 지옥에 있는 자들의 극악한 고통으로 울부짖는 비명 소리를 들었다. 모든 사람들이 두 가지 말을 하였다: “너무 뜨거워! 너무 목 마르다!” 나는 그들의 몸 안에 불이 붙은 것을 보았다; 그들의 몸 안에 불이 지펴질 때 마다, 그들은 소리쳤다. 놀랍게도

구더기는 하나도 죽지 않고 살을 파고 들어 가서 사람들의 뼈 안과 밖으로 기어 다녔다. 매 초마다 그들은 사람들에게 고통을 주었다.

한 영혼이 당하는 고문은 육체의 고문보다 훨씬 심하였다. 내가 이것을 알았을 때, 나는 자신에게 말했다. “회개 없이 예수님을 믿는 것이 예수님을 믿지 않고 지옥 가는 것 보다 훨씬 낫구나.” 만일 울며 이를 가는 곳에 가게 된다면 지옥 보다는 나을 것이다.

천국



나는 그때 ‘천국은 실제로 있는 곳인가?’ 하고 생각하였다. 이 의문이 나의 생각을 스치는 순간에 나의 영이 천국으로 올라가는 것을 느꼈다.



그곳은 너무나 아름다웠다. 천국의 아름다움은 상상할 수 없는 것이었다.

나는 흐르는 물과, 잔디, 산, 그리고 꽃을 보았다. 길은 땅에서 어떤 사람이 만든 것 보다 아름다웠다. 산은 귀한 돌들로 높이 솟았으며, 물은 진주와 수정과 같았고, 길은 순금으로 깔려 있었고, 벽은 벽옥, 루비, 사파이어, 에머랄드로 지어져 있었다. 나는 그 아름다움으로 놀라고만 있었다! 나는 혼자서, “여기서 떠나지 않을거야! 내가 원했던 곳은 바로 이런 곳이야!” 갑자기 천사가 내게 와서 말을 하였다. “너의 믿음으로 네가 가야 할 장소는 슬피 울며 이를 가는 곳이다. 너는 이곳으로 다시 올 수 없을지도 모른다.” 나는 “여기서 나가지 않을래요” 라고 강하게 말했다. 그러자 천사는 “안된다. 너는 가야 해” 라고 말했다. 나는, “내가 땅에 가서 다시 병으로 고생해야 하나요?” 하고 물었다. 그는, “만일 네가 땅으로 가기를 원치 않는다면, 오직 네가 지금 갈 수 있는 곳은 슬피 울며 이를 가는 곳 뿐이다.” 나는, “만일 그곳에 가는 것만 유일한 길이라면, 저는 차라리 땅에 있는 병든 육신으로 돌아 가서 병으로 고통 당하겠습니다.” 라고 말했다. 나는 땅으로 돌아 오는 것을 선택하였다. 그 순간 나의 영혼은 집으로 다시 돌아 왔다.

나의 영혼은 오후 4:10 쯤 떠났는데, 내가 돌아 온 시각은 밤 10:30 이었다. 어머니는 오후 4:00 부터 자정까지 일을 하였다. 그때 나의 동생들은 잠이 들어 있었고, 나의 몸은 의식을 잃고 무릎을 꿇고 기도하는 자세로 침대 옆에 쓰러져 있었다. 그것을 본 나는 너무 슬펐다. 그들은 내가 저녁을 먹었는지도 나중에 없었으며 나는 가족에게 늘 그렇게 무시를 당했다. 나는 혼자서, “내 동생아, 너의 언니가 네 옆에서 죽었는데도 너는 돌아 보지도 않았구나” 라고 말했다.

나의 영혼은 집 안을 여기 저기 다녔다. 병이 없는 나의 영혼은 편안할 수 있었다. 나는 병든 몸으로 들어 가기에 매우 주저하였다. 그것은 내가 한 번 들어 가면, 나는 통증으로 다시 고통을 겪어야 하기 때문이었다. 그러나 만일 들어 가지 않는다면 ‘슬피 울며 이를 가는 곳’으로 가야 한다. 그러므로 나는 마음에 씨름을 하며 몸 안으로 가는 것이 낫다는 것을 알았다.

내 영혼은 몸 안으로 다시 들어 왔다. 나는 숨을 내 쉬며 깨어났다. 그러나 나의 전신은 감각이 없었다. 내 얼굴에는 눈물로 온통 범벅이 되어 있었다. 10분 정도 기다린 후에 내 발에 조금씩 감각이 돌아 오는 것을 느꼈다. 내 영혼이 몸을 떠났을 때 피가 흐르는 것을 멈추었던 것이다.

나는 조금씩 움직여 침대에서 내려 왔으며, 눈물은 나의 뺨을 타고 흘러 내렸다. 너무나 감사하여, “주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저를 땅으로 다시 보내 주셔서 감사합니다” 라고 말씀드렸다. 나의 영혼이 돌아 왔을 때 하나님께서는 내게 몇 가지를 말씀해 주셨다. “나의 딸아 돌아 가거라. 네게는 시간이 많이 남아 있지 않다. 너는 곧 내가 나의 백성들을 위해 준비한 이곳으로 다시 오게 될 것이다. 네가 다시 왔을 때는 네가 경험한 모든 일들을 다른 사람들에게 알려야 한다.” 나는 하나님께서 “짧은 시간” 이라고 말씀하셨을 때, 단지 며칠 간만을 뜻하시는 줄 알았으며, 주님이 곧 오실 것이 매우 가깝다고 생각하였다. 나는 “네, 물론입니다. 제가 천국에서 나가는 대로 저의 경험을 나누겠습니다” 라고 말했다.

내가 이 말씀을 들었을 때 나는 내가 2-3일 정도 있다가 다시 올 줄 알았으며, 나는 주님을 천국에서 다시 볼 수 있다고 생각하였다. 그래서 나는 결혼을 하거나 자녀를 가질 것이라고는 기대하지 않았다. 나는 땅으로 돌아 오면서 하나님의 사랑으로 충만하여 복음을 전하기 시작하였다.

나는 불신자들에게 부터 전하기 시작하였는데, 믿는 자들은 내가 말할 때 나의 이야기를 진심으로 받아 들이지 않았기 때문이었다.

내가 가장 먼저 전한 사람은 나의 어머니였다. 그때 나는 잠에서 감격하며 뛰어 다녔다. 어머니가 일을 마치고 집으로 돌아 왔을 때는 자정이었다. 나는 “어머니, 저는 방금 죽어서 내 영혼이 몸을 떠났어요” 라고 말했다. 어머니는, “그런 정신으로 하루 종일 지냈어? 너는 제 정신이 아니야, 너는 미쳤어!” 나는 나의 어머니도 믿지 않는다면 누가 나를 믿을 것인가? 하고 생각하였다. 나는 또 교회에서 가까운 자매에게 나눌 것을 생각했다. 그녀는 곧장, “리안! 너는 지금 틀림없이 뭔가 잘못되었어. 그것은 불가능한 일이야! 나는 그 말을 안 믿어” 라고 말했다. 그래서 나는 믿는 사람들에게 나의 경험을 나누기를 멈추었다.

내가 믿지 않는 자들에게 말하였을 때는, 한 사람씩 한 사람씩, 모두 예수님께로 돌아 왔다. 기차에서 나의 경험을 다른 사람들에게 나누었을 때, 많은 사람들이 자신의 삶을 주님께 드리기로 작정하였다. 주님을 찬양한다! 나는 그것이 하나님께서 일하고 계셨음을 알았다. 나는 학교에 다닌 적이 한 번도 없었고 자신을 무식하게 여기고 있었다.



나는 하나님께, “주님이 저를 사용하시겠지만, 저는 글을 모릅니다” 라고 말씀을 드렸다. 한번은 내가 죽었다가 나홀 만에 살아난 나사로의 부활에 대한 설교를 듣고 있었다. 주님은 단 한 마디로 나사로는 다시 생명으로 돌아 왔다 (요한복음 11:43). 나는 그 이야기에 감동이 되어 혼자서 말을 하였다. “만일 나사로가 나홀 동안 죽어 진저리 치는 냄새가 날 정도에서 다시 살아 날 수 있다면, 주님이 내게 읽는 것을 가르쳐 주실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하면 훨씬

쉬울텐데.” 그때 나는 읽기를 배우려는 간절한 마음이 있었다. 그 결과로 나의 기도는 더욱 길어져서, 매일 밤마다 나는 새벽 1시나, 2시까지 기도를 하였다.

그날도 새벽 2시 경에 기도를 마치고 잠자리에 들었을 때 꿈을 꾸었다. 갑자기 나는 흰 옷을 입은 너무나 밝은 한 남자를 보았다. 그렇게 밝은 빛은 땅에서 본 적이 없었다. 그는 창문 옆에서 나를 불렀고, “나의 자녀야, 내게로 오라.” 그의 얼굴은 해와 같이 빛이 났으며, 바로 볼 수가 없었다. 그는 이불 안에서 나를 들어 아기처럼 안아 주셨다.

그는, “오늘부터 내가 네게 읽는 것을 가르쳐 주마” 라고 말씀하셨다. 나는, “와, 감사합니다. 너무 기뻐요, 어디서 부터 시작해야 하나요?” 라고 대답했다. “요한 복음 부터 시작하자” 라고 주님이 말씀하셨다. 그는 성경의 요한 복음 21:15을



펴시고 읽기 시작하셨다, “그들이 조반을 먹은 후에 예수께서 시몬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하시니 이르되 주님 그러하나이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이르시되 내 어린 양을 먹이라 하시고”

계속 읽는 동안 베드로의 이름이 나의 이름으로 바뀌었다. 나는 그때 나의 이름도 읽을 줄 몰랐으므로 주님이 계속 가르쳐 주셨다. 주님은 내게, “리안, 너는 나를 이 모든 것보다 더 사랑하느냐?” 하고 물으셨다. 나는 “무엇을 가리켜 말씀하시나요?” 라고 물으니 주님은 “이 물질 세상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라고 말씀하셨다. 나는, “주님, 제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이 아십니까” 라고 대답하였다. 우리는 새벽까지 계속 읽었다.

새벽에 내가 잠에서 깨었을 때, 내가 여전히 계속 읽고 있는 것을 발견하였다. 나는 재빨리 성경을 집어 요한 복음 21:15절 있는 곳을 펼쳤다. 나는, “아, 이것이 요한 복음이구나” 하고 말하였다. 그러나 나는 그때 아버지, 동생들에게 말하고 싶었으나 실수할까 두려웠다. 나는 여동생과 오빠에게, “이리 와 봐, 오늘은 내가 너희들에게 성경 구절을 읽어 줄께” 라고 말했다. 그들은, “읽어 봐” 하고 말했다. 나는 “이것 요한 복음, 맞아?” 하고 물었다. 그들은 나를 쳐다 보며, “맞아, 맞아, 잘 알아 맞추네” 나는 “좀 더 읽어 줄께” “그들이 조반을 먹은 후에 예수께서 시몬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라고 읽자, 그들은 경악하며 말을 이었다. “언니, 어떻게 이것을 읽는 것을 배웠어?” “나는 내가 맞게 읽었는지가 더 궁금해” 내가 라고 대답하였다. 그들은, “맞아, 전부 맞았어. 전부 맞게 읽었어!” 라며 감탄했다.

나는 점점 성경에 있는 글들을 알아보기 시작하였다; 그러나 성경 외에 다른 책에 있는 글은 알아 볼 수 없었다. 심지어 요한 복음을 가르치는 다른 영적인 참고 도서조차도 읽을 수 없었다. 그 글들은 친숙하게는 보이나, 그 말들을 이해할 수 없었다.

결과적으로 하나님께서는 내게 성경을 어떻게 공부하는지 몇 년동안 계속하여 가르쳐 주셨다. 그것은 나의 영적인 샘이 되었고 나는 매우 열심히 공부하였다. 나의 읽는 속도는 느렸으며, 때로 한 절을 읽는데 며칠씩 걸리기도 하였다. 그러나 나는 성령으로부터 많은 것을 받았다.

매일 나는 정기적으로 묵상하였으며 기도하고 읽었고 그로 인하여 나의 삶은 영적으로 풍성하여져 갔다. 그것이 나와 예수님과의 관계를 쌓은 방법이었다.

그리고 나서, 나는 한 교회에 다니며 2년간 주님을 위해 일을 하였다. 그것은 풍성한 열매를 맺었던 경험의 시간이었고, 또한 나 자신과 다른 형제 자매들의 영적인 삶을 도와 주었다. 그러나 주님은 그때의 나의 일을 기뻐하지 않으셨다.

영적인 은사나 초자연적인 역사가 나의 영적인 생명을 반향하는 것이 아니었다. 바울이 말한 것 처럼 “내가 내 몸을 쳐 복종하게 함은 내가 남에게 전파한 후에 자신이 도리어 버림을 당할까 두려워 함이로다” (고전9:27).

2004년에 나는 한 목사님과 함께 나의 집에서 교회를 개척하기로 하였다. 우리는 그 전까지 사역을 잘 해 왔다고 생각하였다. 2006년 1월 2일에 하나님께서 내게 다음 날 무슨 일이 일어날 것인지를 말씀해 주셨다. 그리고 그 일은 정말로 일어났다.

1월 3일 내가 아침에 일어날 즈음에 주님께서 내게 말씀하셨다, “내일 아침에 어떤 사람이 그의 할머니를 위해 기도해 달라고 요청하러 올 것이다. 그때 함께 가야 한다.” 1월 4일, 나는 아침 8시 부터 기다렸는데, 10시에 그 사람이 왔다. 그 사람은 내가 꿈에서 본 것과 꼭 같아서 매우 놀랐다. 그래서 나는 그의 할머니를 위해 그와 함께 기도하러 갔다.

1월 5일, 나는 또 다른 말씀을 꿈을 통해 보여 주셔서 깜짝 놀랐다. 하나님은 나에게, “내가 곧 갈 것이니 너는 반드시 회개하여야 한다!” 나는 깜짝 놀라며 대답을 하였다. “주님이 오시니 제가 회개를 해야 한다고요? 제가 함께 동역하고 있는 목사님은요?” 하고 물었다. 주님은, “그에 대한 것은 네가 상관할 바가 아니다. 내가 곧 가니, 너는 속히 회개하여라!” 나는 “내가 무엇을 회개하여야 하는가? 나는 여태 교회를 돌보기에 바빴다. 그런데 내가 왜 회개할 필요가 있는가?” 하고 생각했다. 그분은 내게, “따라 오너라, 내가 네게 보여 줄 곳이 있다” 라고 말씀하셨다.

마 음

우리는 눈 깜짝할 사이에 한 집에 도착하였는데, 안에 있는 벽과 마루는 너무나 더러웠다. 너무 더러워 안으로 들어 갈 수가 없을 정도였다. 나는, “여기가 어디입니까? 왜 이렇게 더러운가요?” 하고 물었다.





주님은, “**이것이 네 마음이라는 것을 아느냐?**” 하고 말씀하셨다. 나는 진정으로 몰랐다; 나는 주님을 섬기고 있었으므로 나 자신이 깨끗한 줄로 생각하고 있었다. 사실은 나는 주님을 저항하고 있었다. 나는 “**언제 제가 이처럼 고백하지 않은 많은 죄를 지었나요?**” 라고 물었다. 그때 주님은 그것들을 하나씩 드러내기 시작하셨다. 그는 “**너는 내가 너의 죄를 하나씩 용서할 수 있도록 너의 죄를 하나씩 고백하여라.**”

갑자기 나는 피로 가득 채워진 매우 깨끗하고 흰 통을 보았다. 예수님은 흰 옷을 입고 계셨고 붓과 같은 솔을 들고 계셨다. 그는, “**너의 죄를 하나씩 고백하면 내가 하나씩 지울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다.

나는 “**제가 이 죄들을 지었을 때를 보여 주세요**” 라고 간구했다. 주님은 나의 죄를 하나씩 보여 주셨는데 그것은 영화 장면처럼 지나갔다. 나는 즉시로 나의 죄를 고백하기 시작하였다. 내가 그럴 때 마다 주님은 솔을 통에 넣고 죄를 지우셨다.

내가 나의 모든 죄들을 하나씩 고백한 후에 집 전체는 피로 칠해져 있었다. 놀랍게도 그 곳은 희게 변해 있었고, 밝게 빛이 났다. 그때 나는 내가 깨끗해 졌음을 느꼈다. 그는, “**이곳에 교회를 세우지 마라. 너는 교회 일을 중지하여야 한다. 나는 너의 지난 2년 간의 사역을 기억하지 않는다**” 라고 말씀하셨다. 나는 “**만일 주님이 저의 일을 기억해 주시지 않는다면, 저는 여기서 무엇을 해야 하나요?**” 라고 물었다.



그리고 갑자기 잠에서 깨었다. 나는 심하게 땀으로 젖어 있었고, 내 옷은 완전히 젖어 있었다. 보통 나의 가족은 아침에 일찍 일어나 매일 아침 마디 성경 공부를 하였다. 나는 매일 밤 마다 주님께로부터 받은 것이 다음 날 이루어 지는 것을 기대하였으므로, 주님이 곧 오신다는 말씀이 두려웠다.

나는, “**그러면, 나는 무엇을 해야 하나?**” 하고 불안해 하며 말하였다. “**어떻게 영이 깨어나지 않고 성경 공부를 가르칠 수 있나? 다른 날이면 몰라도, 오늘은 안돼! 주님이 곧 오신다는 것을 너는 모르니?**” 하고 혼자서 말했다. 어머니는 나를 보고 또 다시 제 정신이 아니라고 생각하고 기도하러 가셨다. 나는 주님이 다음 날 오실까 봐 두려움에 떨었다. 나는 집에 앉아서 회개하기로 결심을 하고 성경 공부와 교회 모임 전체를 취소하였다.

목사님은 내게, “**왜 우리가 교회 모임을 취소해야 합니까?**” 하고 물었다. 나는 “**많은 경우에 사람들이 주님을 믿은 후에, 그들의 삶이 변하고 새로워 집니다. 그러나 나는 지금 하나님께서 나와 나의 마음을 다루기를 원하시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우리가 모임을 취소하여야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이 모임을 기억하지 않으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계속 해 나갈 수 없습니다.**” 성경에 기록된 대로, 단상 위에서 설교하는 것은 중요하지 않았다 (마23:3).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가 교회 마당에서 벗어나서, 당신의 일생에서 하나님과의 관계와 사람과의

관계를 어떻게 영위하는가 이다. 나도 하나님께서 나의 가정에 대해 다루실 줄은 전혀 생각하지 못했다.

나는, “주님, 제게 주님이 기뻐하시는 것과 제가 해야 할 것을 가르쳐 주세요 어떤 일이 금이나 은이나 보석으로 짓는 일인지, 제발 말씀해 주세요! (고린도 전서 3:12)” 라고 간청하였다. 주님은, “진정으로 나의 마음을 흡족하게 하기를 원하느냐?” 라고 물으셨다. 나는, “예” 라고 대답하였다. 주님은 “**좋다, 그러면 가서 너의 자녀들과 남편을 잘 보살피고 집을 깨끗이 청소하여라. 그것이 내가 원하는 것이다.**” 나는 그것이 하나님께로 온 것인지 정말 강하게 믿어 지지 않았다. 그 동안 나는 교회 일로 바빠 나의 빨래와 남편의 것을 나누었다. 아이들을 돌보는 일과 교회 일을 준비하기에 너무 바빴으므로 남편의 양말을 빨아 줄 시간이 없었기 때문이었다. 남편은 자신의 빨래를 손수 하여야 했고 내 일까지 돌보아 주어야 했다. 그 날의 일에서 돌아 오면 남편은 자신의 빨래를 손수 하고 어질러진 집을 청소하여야 했다.

나는, “오 주님, 이 말씀이 주님께로부터 온 것이 맞습니까? 제가 주님을 위해 일 할 필요가 없고, 대신에 이런 일을 해야 하나요? 라고 생각했다. 주님은, “**그렇다!**” 라고 말씀하셨다. 나는 곧 남편의 빨래를 하기 시작하였다. 내가 빨래를 하고 있는 동안 내내 주님은 나를 교육시키고 계셨다. 주님은 내 마음을 계속하여 움직이시며, 말씀하셨다: “**너는 네가 이 양말 한 짝을 빠는 것이 금이나 은이나 보석의, 내가 기쁨으로 기억하는 일이라는 것을 알고 있느냐?**” 그것은 정말 나를 놀라게 만들었다. 나는 남편에게, “**지금부터 당신의 더러운 양말을 전부 내가 빨게요!**” 라고 말했다. 남편은 너무 놀라 두려워하는 눈치였다. “당신이 왜 이렇게 극적으로 변했어? 갑자기 너무 착해졌네” 라고 말했다. 나는, “**사실, 하나님께서 제게 가르쳐 주셨어요 지금부터 나는 당신이 빨래 하는 것을 허락하지 않겠어요**” 라고 말했다. 그리고 교회의 모든 모임을 취소하고 나는 집 안의 일에 전념하였다. 나는 이런 방법으로 하나님께서 나의 삶을 바꾸시려는 것은 결코 기대하지 못했다. 나는 성경 공부와 교회 모임을 취소하고, 그 동안에 있었던 어떤 것 보다 가장 많은 기름 부으심을 받았다.



이 일이 전부가 아니었다. 이후에 하나님은 나를 시덱으로 보내셨다. 나는 용니안 에서 살고 있었는데, 시덱은 나의 집에서 600 km 정도 떨어진 팡쭈우에 있었다. 그들은 불신자들이었기에 그들은 내게 많은 핍박을 가했다. 시덱으로 가려면 하루 종일 버스를 타야 했다. 내가 도착하였을 때, 그들은 막 저녁을 먹으려던 참이었다. 나는 식사 전 마다 가족이 함께 기도하기를 딸에게 가르쳐 왔다. 시덱에서 그들이 식사 준비를 끝내고 난 후 모두를 식사하라고 불렀다. 그때 2살 난 나의 딸이, “**엄마, 기도하세요**” 라고 말했다. 나의 시어머니는 딸이 무어라고 말했는지 못 알아 들으시고, “**리안, 애가 무어라고 말하자?**” 라고 물으셨다. 나는 “**우리가 기도 해야 밥을 먹을 수 있다고 했어요**” 라고 대답하였다. 즉시로 나의 시아버지는 시누이를 불러, “**윤윤! 향불 피운 그릇을 가지고 오너라. 그릇에 모래를 뿌리고 씻어서 거기에 국수를 넣어 네 올케 언니에게 갖다 주어라**” 라고 말씀하셨다.

그들은 이런 고통을 내게 주었다. 그리고 그는 내게 국수 한 그릇을 주며 말했다, “**어서 이 그릇으로 먹어. 이 그릇은 축복이 가득하다.**” 그들은 나를 정면으로 대적하였다. 내가 그들

가정에 시집 온 지 얼마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나를 그렇게 대하였다. 나는, “주님, 이제 제가 무엇을 해야 하나요?” 라고 물었다. 주님은 내게, “**우상은 아무 것도 아니다. 우상을 섬기는 데 사용하였던 이 그릇도 아무 것도 아니다**” 라고 말씀하셨다. 나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이것은 아무 것도 아닙니다!”

나의 딸은 계속해서 나를 졸랐다, “엄마, 기도 해!” 나는 무엇을 위해 기도하나 하고 생각하였다. 그들은 내게 그들이 우상을 섬기는데 썼던 그릇으로 내게 음식을 주었다. 나는 “**그래! 기도하자! 사랑하는 주님, 주님께 감사와 찬양을 드립니다**” 라고 말했다. 처음에 나는 기도하기가 두려웠지만 그들이 나를 힘겹게 하면 할수록 더욱 담대하게 기도하였다. 성경의 말씀이 내 머리에 떠 올랐다. “**은밀한 중에 계신 네 아버지께 기도하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네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마태복음7:7) 하나님께서 내게 말씀하셨다. “**이것이 금과 은과 보석의 일이다.**” 나는 “그래요?” 하고 말했다. 누군가 내 젓가락을 바닥에다 내동댕이쳤다. 그런데 이것이 금과 은과 보석의 일인가? 나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라고 말했다. 나는 재빨리 일어나 눈물을 닦으니 나의 고통과 분노는 사라졌다. 주님의 말씀은 진정으로 평안을 주었다. 그래서 나는 젓가락을 바닥에서 찾으니 한 짝 밖에 없었다. 식사 후에 나는 보통 그릇을 한 번만 씻는데 그때는 세 번을 씻었다. 주님이 내게 이 일이 금과 은과 보석의 일이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이다. 그래서 나는 매우 깨끗이 씻기를 원했고, 씻으면 씻을수록 내 안에는 기쁨이 더 많이 솟았다.



그때, 남편이 갑자기 예고 없이 그곳으로 왔다. 그는 내가 그들을 위해 어떻게 식사를 준비하고 집을 청소하는지를 보았고, 나의 시댁 식구들은 아무 것도 하지 않으면서 마작이나 도박만 하고 있는 것을 보았다. 나의 남편은 그것을 보고 견딜 수 없어 하며 그의 가족에게 화를 내었다. 실제로, 고통을 견디는 것은 나의 제 2의 천성이 되었으며 습관이 되었다. 나는, “**전 괜찮아요!**” 하고 말했다. 그는, “**온 식구들의 심부름은 그만 해**” 라고 말했다. 나는 “**내가 하는 일은 그들을 위해 하는 것이 아니에요**” 라고 말했다. 남편은, “**가자!**” 라고 말했다. 나는, “**안 되요, 이걸 하나님 눈에 금과 은과 보석의 일 이에요**” 라고 대답했다. 그는 내가 하는 말을 이해하지 못했다 그는 내가 그와 함께 떠나기를 원했다. 그러나 내가 거절하자 그는 술을 마시러 밖으로 나가 버렸다.

남편은 나중에 돌아 와서 그의 부모와 말다툼을 하였다. 나는 혼자서, “주님, 금과 은의 일이 곧 끝나 버리겠군요” 라고 중얼거렸다. 우리는 이곳을 기쁘게 떠날 수 있었는데, 남편이 갑자기 이런 모양으로 행동하여 버린 것이었다. 이런 상황에서 어떻게 아름답게 끝맺음을 할 수 있는가? 남편이 그의 아버지와 말다툼 후에, “**리안, 따라 와. 우리 이 집에 다신 발을 들여 놓지 않을거야. 이 집에 내가 다시 발을 들여 놓는다면, 나는 이 집안 식구가 아니야.**” 라고 말했다. 그러나 주님은 내게, “**안 된다. 너는 지금 가서는 안 된다**” 라고 말씀하셨다. 나는 남편에게 말하자 남편이 매우 화를 내며 내게 말 하였다. “**당신 때문에, 내가 부모님께 책망 받는다.**” 나는, “**주님이 나를 이 집안의 사람이 되도록 인도하셨어요 나는 주님의 인도하심에 순종해야 합니다. 그러니 당신은 가도 됩니다.**”



라고 말했다. 남편은, “좋아, 가겠어. 당신은 여기서 떠나지 말고 영원히 살아!” 라고 말했다. 나는, “주님이 나를 인도하실 때 떠나겠어요” 라고 말했다.

남편은 화를 내며 떠났고 나는 시택에 남아 있게 되었다. 나는, “오, 주님, 저는 언제 이 집에서 나갈 수 있나요?” 주님은 “**기다려라. 지금은 때가 되지 않았다**” 라고 말씀하셨다. 나는, “ **좋습니다!**” 라고 대답하였다. 그때 시택 식구들은 옷을 갈아 입었다. 나는 곧 그것을 가지고 세탁장으로 달려 갔다. 갑자기 하나님께서 시택 식구의 마음을 여셔서 집안 일 모두를 내게만 하도록 해서는 안 된다는 생각을 하게 하셨다. 그들은, “**이 며느리는 우리 집에 오느라고 멀리서 왔다, 이 빨래는 우리 딸이 해야 한다. 이 일은 딸 아이의**

일이다”

시택 식구들은 갑자기 내게 잘 대해 주기 시작하여서 나는 놀라게 하였다. 내가 밖에서 빨래를 하고 있는데, 시어머니가 오셔서 내가 추울까 봐 천으로 덮어 주시며 “**리안, 이걸 덮어라**” 라고 말씀하셨다. 시아버지는 내게 따뜻한 차를 가져 오시며, “**이리 와서 따뜻한 차를 마셔라**” 라고 말씀하셨다. 그들이 늘 나를 무시하였기 때문에 갑자기 잘 대해 주시는 것에 놀랐으며, 오히려 어떻게 처신해야 할 지 몰랐다. 시아버님은 내게 집에 담요가 몇 개나 필요한 지도 물으시며, “**내가 준비해 놓으며, 네가 필요한 것은 이 집에서 무엇이든 가져 가거라. 우리는 네게 무엇이든지 주고 싶구나**” 라고 말씀하셨다. 갑자기 주님은 내게, “**지금 이 때이다. 내일까지 즉시 떠나라**” 라고 말씀하셨다.

내가 떠나는 시각도 기적적이었다. 동네 사람 전부가 나와서 내게 작별 인사를 하였고 나는 가난한 시골에 온 부자 영웅처럼 나를 대우해 주었다. 모두가 이 며느리는 고생을 너무 많이 하였다고 말했다. 20일 동안, 이 며느리는 집 안과 밖의 일을 다 하였다고 말하였다. 갑자기 주님은 내게, “**모든 사람들에게 칭찬을 들을때, 네게 화가 있다**” 라고 말씀하셨다. 나는, “**주님, 저를 강하게 하셨던 주님의 말씀이 없이는 아무 것도 할 수 없었습니다. 주님이 끊임없이 도와 주시지 않으셨다면 저는 이만큼 할 수 없었습니다. 이들은 주님을 찬양하고 있는 것이며, 모든 영광을 주님께 돌려 드립니다**” 라고 말씀 드렸다.

버스를 타고

시아버지께서 우리가 버스에 오르는 것을 지켜 보셨다. 우리는 버스를 타고 먼 길을 다시 왔다. 버스는 하교 길의 학생들로 만원이었다. 시택에 있었던 동안 나의 영은 주님께 들려 졌으며, 권위가 있는 기름 부음이 있었다. 버스에 앉아 있는 동안 나는 더러운 말로 방송하는 토크쇼를 보았다. 나는 현기증을 느껴 일어 났다.

그러나 내가 너무 많은 사람들을 보았을 때, 다시 앉기를 세 번이나 되풀이 하였다. 나는 눈을 감고 기도하였다. “오, 주님, *저의 정신이 혼미합니다. 어떻게 해야 합니까?*” 갑자기 주님이 내게 성전 안의 예수님의 모습을 환상으로 보여 주셨다. 예수님은 채찍을 내려 치며 성전을 정결케 하고 계셨다. 나는 그 모습을 보았을 때, 더 이상 서 있을 수 없었다. 갑자기 나는 일어나 버스 운전수를 불렀다: “운전수 아저씨! 비디오를 끄십시오! *어떻게 이런 비디오를 공공 장소에서 켤 수가 있습니까? 집에서 보시든지, 이런 데서 보는 것이 합당하다고 생각하세요?*”



버스 운전수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그와 표를 받는 안내원은 서로 쳐다만 보았다. 운전수가 물었다. “*저 여자가 왜 저러지?*” 그러자 안내원은 “*몰라요*” 라고 말했다. 그는 “*당신은 누구요?*” 라고 내게 물었다. 나는 “*말씀 드리지요 제가 누구인지는 물어실 필요가 없어요 만일 내가 누구인지 안다면 나는 당신의 TV 와 CD 를 부수어 버리겠어요 그리고 당신은 벌금을 물어야 해요!*” 나는 어디서 그런 담대함이 나왔는지 나도 알 수 없었다. 그 운전수는 병어리처럼 있다가, “*알았어요, 알았어요, 끝께요, 끝께요*” 라고 말했다. 그는 즉시로 비디오를 끄고 옆으로 밀어 놓았다.

표를 받는 안내원은 앉아서 꼼짝하지 않았다. 버스에는 정적이 흘렀다. 아무도 말을 하지 않았으며, 편이 떨어지는 소리가 들릴 지경이었다. 버스는 행슈이 까지 와서 승객들에게 화장실 갔다 올 시간을 주었다. 사람들이 내리면서 내게 미소를 보냈다. 그것은 거기 있던 모든 사람들이 그런 불순한 비디오에 대해 옳지 않다고 생각을 하였으나, 아무도 나서서 말을 하는 자가 없었다. 그만큼 세상과 사회가 타락한 것이다.

이후에 시어머니께서 우리와 함께 지내시러 오셨을 때, 나는 시어머니께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시도록 인도하였다. 그 해 7월에 대학 다니던 시누이가 내게 와서 크게 소리를 지르고 가버렸다. 그로부터 3개월 후에, 시누이는 우울증이 걸렸는데, 그녀의 남자 친구가 그녀에게서 떠났기 때문이었다. 여러 번 그녀는 자살을 시도하였으며, 실패로 끝났다. 그녀는 믿음에 대해 여전히 나와 싸우려 하였다. 그녀는 내가 그녀를 도울 수 있다는 것을 알고 있었지만, 내게 청하기에는 너무 수치스러워 하였다. 나중에 나를 불러 말했다. “*언니, 와서 나를 도와 주세요 나를 구할 수 있는 사람은 언니 밖에 없어요*” 나는 시누이에게 말하기를, “*나는 아무도 구할 수 없어요 오직*



하나님만 구원하실 수 있어요 저와 함께 예수님을 영접하는 기도를 하고 싶으세요?” 라고 하였다. 그녀는, “네!” 라고 대답했다. 그리고 나는 그녀가 예수 그리스도를 그녀의 구주로 영접하도록 함께 기도하였다. 이 모든 일은 내가 결혼 한 후, 싸우고 말 다툼하며 오랜 세월이 걸린 후에 일어난 일들이다. 그러나 내가 나 자신을 낮추기 시작하였을 때, 하나님은 나를 계속적으로 낮추셨다. 그리고 어느 날 하나님께서 나를 일으키셨다.

내가 버스에서 한 말들은 시택에서 설거지와 빨래와 모든 집안 일들을 하며 받았던 영적인 훈련의 결과였다. 내가 영적인 것과 싸우는 것을 배운 것은 그때였다. 나는 내가 싸우고 있는 대상이 밖으로 보이는 육신이 아니라 안에 있는 영을 다루며 싸우는 것을 깨달았다. 당신이 하나님께서 어떻게 당신의 마음에 강함이 되시는지를 깨달을 때, 그 능력은 너무나 강력해진다. 나는 많은 병마와 오랫동안 전쟁을 치러 왔다. 그러나 내 안에 있는 속 사람이 주님과 연결되었을 때, 나의 육신적인 병들은 모두 다 사라져 버렸다. 그만큼 주님은 실재이시다!!

내가 아직 고통 중에 있었을 때에도 주님은 나와 함께 계셨으며, 여전히 기쁨이 충만하였다. 나의 교회의 형제 자매들은 내가 제 정신이 아니라고 생각했다. 이후에 나는 “**고난 중에 기뻐하라**” 라는 말에 대해 내가 무언가를 잘못 알고 있다는 생각이 들었다. 그 때 나는 두 주일 동안 주님과 함께 연합하기로 결정하고 “나는 고통을 즐기지 않는다. 그러나 나는 고통 중에도 주님의 임재를 즐긴다” 라고 마음을 먹었다. 나는 자신을 돌아 보며, 언제 가장 주님과 가까운 관계를 가졌던가를 생각하여 보았다. 그것은 내가 고통 중에 있을 때였다. 그래서 나는 하나님께 내게 있는 모든 고통을 두고 하나님께 찬양을 드렸다. 하나님을 찬양하는 동안 집에서 탬버린을 치며 춤을 추었다.

하루 밤에는, 내가 주님과 함께하고 연합하고 싶은 소원이 너무나 강렬하여 야곱처럼 주님과 씨름하며 주님을 놓치지 않기를 원했다. 그 다음 날 깨어 났을 때 나는 다리와 다리 근육을 움직일 수 없었다. 그때 나는 야곱이 주님과 씨름을 하였던 것을 기억하였다. 주님은 내게 조금씩, 조금씩 깨닫게 하셨다. 나는 나의 모든 고통을 찬양하여야 한다. 나는, “오, 주님, 당신이 지혜의 충만이심을 알지 못했습니다” 라고 말했다. 우리는 우리가 경험한 모든 고통을 찬양할 때, 지혜가 하나님께로부터 온다. 하나님의 지혜는 언제나 우리의 지혜보다 높으시다. 그는 그의 아들을 우리를 위해 십자가 위에서 죽게 하셨다. 그것이 하나님의 지혜이며 능력이다! 우리의 눈에는, 그것이 수치이며 어리석음이나, 하나님의 눈에는 그것이 우리 모두를 구원하시는 지혜이다.

기차 여행

한 번은 우리 아이들을 데리고 중국의 북동쪽으로 여행을 간 일이 있다. 버스가 너무 늦게 왔다. 원래는 8시에 버스가 왔어야 하지만 9시가 되어도 오지 않았다. 아이들은 피곤하여 잠이 들었다. 우리가 버스에 오를 때에 아이들이 갑자기 깨어 울며 말했다, “자고 싶어요, 집에 가서 잘래요!” 남편은 나를 찌르며, “여기는 자리도 없으니 집에 다시 가서 자자, 여기서 나가자.” 그때 나는 어떻게 해야 할 지 몰랐다. 나는 하나님의 인도를 분명히 받고 왔기 때문이었다.

나는 주님께 말씀 드렸다. “주님, 저의 삶은 온전히 주님의 것입니다. 저는 저의 삶이 편하기를 원치 않습니다. 그러나 남편과 아이들이 저 때문에 고통을 겪어야 합니다.” 갑자기 주님이 내게 말씀하셨다. “내가 장래에 그들에게 어떻게 보상할지 알고 있는가? 그들에게도 너와 같은 상이 있을 것이다.” 그때 남편은 내게 말했다. “집에 가든지, 아니면 차표를 끊어.” 나는 주님이 말씀하신 대로 말했다. “차표 끊으러 갑시다.”

드디어 우리는 만원이 된 기차로 비좁고 들어갔다. 그러나 사람들이 너무 많아 우리는 통로에서 있을 수 밖에 없었다. 갑자기 주님이, “리안, 나를 찬양하여라. 나는 너의 찬양을 듣고 싶다!” 라고 말씀하셨다. 나는, “오 주님, 제게 농담하지 마십시오. 이런 곳에서 이 시각에 어떻게 소리 내어 찬양을 할 수가 있습니까?” 주님은 내게 다시 재촉하셨다, “어서 찬양하여라. 내가 듣고



싶다.” 나는, “주님, 안 되요” 라고 말했다. 주님은, “어서 나를 찬양하여라!” 나는 “주님, 제가 주님께 찬양을 드린다 하여도, 솔직히 말씀 드리자면, 그것은 저의 마음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 찬양은 거짓입니다.” 그때 주님은, “그것이 네 마음에서 나온 것이 아니어도 좋다. 나는 진정으로 너의 찬양을 듣기를 원한다. 그리고 나는 이런 상황과 같은 곳에서 나를 찬양하는 소리를 듣기를 원한다” 라고 말씀하셨다. 그 때 주님은 나의 마음 속에서 말씀하셨다. “네가 만일 이런 상황에서 나를 찬양하지 못하면, 너는 다른 사람들과 다를 바가 없다. 믿지 않는 자와 다른 것이 무엇이나? 믿지 않는 자들도 기차에 오를 수 있을 때에는 하나님께 감사한다. 너와 그들의 다른 점이 무엇이나?” “저는 믿지 않는 자들과 다릅니다. 오 주님, 저는 당신을 찬양합니다!”

내가 찬양을 하려고 하였을 때, 아이들이 울고 있었고, 사람들은 미어 터지도록 복잡하였고, 기분 나쁜 냄새는 온 기차 안을 진동 시켰으며, 내 몸에는 땀으로 범벅이 되어 있었다. 나는 “주님, 이 기차 안으로 끼어 들어 올 수 있었던 것에 주님을 찬양합니다” 라고 말했다. 내가 하나님을 찬양하기 시작한 순간 나의 마음은 평강으로 가라 앉았다. 나는, “주님, 우리가 자리를 잡지 못한 것에 대한 하나님의 지혜를 찬양합니다. 저는 주님께서 제게 목적지에 갈 때 까지 서 있을 수 있도록 다리에 힘을 주실 것을 믿습니다.”

내가 찬양을 하면 할수록, 아이들의 울음 소리는 점점 작아졌다. 그리고 찬양을 할수록 기쁨이 내 안에서 샘 솟듯 솟아 나왔다. 그때 하나님께서 내가 아이들을 팔에 안고 화장실 문을 잡고 있는 내게 눈짓을 하셨다. 나는 뛰며 말했다. “주님, 찬양합니다.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하나님은 나의 힘이십니다.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주님을 찬양합니다. 찬양합니다.” 나는 끊임없이 찬양하였다. 기차에는 모든 종류의 사람들이 내 주위를 둘러 싸고 있었지만 내가 무슨 말을 하는지 알지 못했다. 그러나 나는 찬양하고 또 찬양하였다.

조금 후에, 남편이 침대 칸의 표로 바꿀 수 있는 지 알아 오고 오겠다고 말했다. 솔직히 말해 나는 우리가 침대 칸으로 갈 수 있는지에 대해서 관심도 없었다. “오, 주님, 당신이 나와 함께

하십니다. 주님은 제가 목적지까지 서 있을 수 있도록 힘 주실 것입니다. 저는 믿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저는 너무나 감사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표를 바꾸려고 줄을 서 있었다. 마침내, 남편이 마지막으로 남은 두 장의 표를 구할 수가 있었다. 남편은, “주님을 찬양합니다!” 라고 말했다. 나는 “침대 칸을 가졌을 때 감사하는 내적 능력도 위대하지만, 가지지 못했을 때 감사하는 내적 능력은 더욱 큰 것 이예요” 라고 말했다.

당신의 영적 삶이 다른 사람이 보지 못하는 것을 볼 때, 당신은 더 멀리 볼 수 있다. 당신의 운 앞에 있는 모든 고통은 아주 작은 조각으로 보일 것이다. 고난은 영적인 음식이며, 인생의 영양이 듬뿍 들어 있는 영양제 이다. 와서 먹으라, 그리고 강건하여지라. 내가 집에 도착하였을 때, 나는 다리와 허리에 통증을 느꼈다.

보통 통증이 있을 때, 나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그 통증을 쫓아 내고, 등과 허리에서 나가라고 꾸짖는다.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나는 나음을 입었다!**” 이렇게 할 때 마다 이 말씀은 매우 능력이 있었다. 그러나 한 번은 이렇게 하는데도 아무런 일이 일어 나지 않았다. “**웬 일이지?**” 나는 반문하였다. 그리고 깊은 기도에 들어 가서 성령을 통하여 주님께 물었다. 주님은, “**너는 자신이 얼마나 불순종하고 있는 지 아느냐? 왜 너의 다리에 통증이 있느냐?**



너는 하나님을 찬양하여라! 왜 너에게 허리 통증이 있느냐? 너는 하나님을 찬양하라!”

그리고 나는 내가 하나님과 마음을 같이 하지 않았음을 깨달았다. 나는 일어 서서 다리를 뻗고, 허리를 돌렸다. 내 온 몸이 주님을 찬양해야 하기 때문이었다! 나는 일어 나서 찬양하고 또 찬양하였다. 나는 내가 주님께 아름답게 춤을 추었다고 믿는다. 마루에 구르기도 하였다. 나는 남편이 와서 보고 미쳤다고 생각하지 않도록 문을 잠그고 있었다. 나는 가끔 주님께 온 맘과 온 몸으로 찬양한다. 내가 마루를 뒹굴며 찬양을 하고 있을 때 주님은 갑자기 내게 말씀하셨다. “**무대 위에 배우들이 사람들의 박수를 받으려고 갖가지로 연출 하는 것을 보지 못 했느냐? 네가 나를 찬양할 때 그것이 내게 얼마나 기쁨을 가지고 오는 지 아느냐?**”



나는 자주 도심지에서 조금 떨어진 훈련원에서 나의 친구와 자정까지 기도를 한다. 거기서 우리는 마음껏 찬양을 할 수 있기 때문이다. 하루는 우리가 새벽 두 시까지 찬양과 기도를 하고 있는데 친구는 잠이 들었다. 나는 혼자서 더 기도하고 있었을 때, 환상을 보았다. 두 천사가 각각 매우 큰 대접을 들고 있었다.

천사들은 우리에게서 무언가를 열심히 잡으려고 하고 있었다. 그때 나는 천사들이 무엇을 움켜 잡으려고 하는지 몰랐다. 그러나 나는 천사들을 보는 것이 너무 감격하여 더욱 쉬지 않고 열심히 기도하고 찬양하였다. 나는 영으로 찬양하였으며, 천사들은 금 잔에 계속 담고 무언가를 더 잡으려는 것처럼 보였다. 나는 목소리가 더 이상 나오지 않을 때까지 오랫동안 기도 하였다. 나는 그 금 잔 안에 무엇이 있는지 궁금하였다. 나는 그것이 어쩌면 눈물이나,

수증기 등이 들어 있으리라 생각했다. 그러나 내가 안을 들여다 보았을 때, 그 잔에는 향수의 향기가 가득하였다. 그리고 다른 천사의 잔은 비어 있었다. 그리고 비어 있는 채로 떠났다. 나는 궁금하였다. 새벽에 나는 누워 잠을 조금 청하였다. 나는 여동생에게 아무 말도 하지 않았지만, 동생은 내게 물었다. “밤에 너무 잠이 와서 자버렸어. 자매는 기도를 너무 열심히 하던데, 환상을 보았어?”



나중에, 나는 침대 옆에서 무릎을 꿇고 주님께 물었다. 주님은 갑자기 내 마음을 여시고 말씀하셨다. “**깨닫기에 더딘 자야, 두 천사 중에 하나는 너의 천사이고 다른 하나는 너의 친구의 천사이다**” 나는 주님께 “**왜 천사들이 대접을 들고 있나요?**” 라고 물었다. 주님은 “**그것은 너의 기도를 받기 위해서이다**” 라고 대답하셨다. 그리고 “**다른 사람은 잠을 잤다**” 라고 말씀하셨다. 나는, “**그렇게 간단한 것인가요?**” 라고 물었다. 주님은, “**그렇다, 그 잔은 너의 기도로 가득 찼다. 천사는 그것을 들고 하나님께 가져 가서 드릴 것이다. 하나님은 너를 기름 부으시는데 너의 기도를 사용할 것이다. 그러므로, 기도는 질병과 심지어 암의 왕국을 완전히 파괴할 수 있는 것은 그 기름 부으심이 하나님께로부터 나기 때문이다. 이것이 하나님께로부터 부어 질 때는 막강한 힘이 나가서 사탄의 수 백 영역을 파괴할 수 있다.**”

내가 기름 부음이 어떻게 나타나는 지에 대한 과정을 알고 나서는, 밤새도록 쉬지않고 기도하는 것을 이전 보다 더욱 즐기게 되었다. 가끔 내 육신이 주장하려 할 때, 주님은 갑자기 내게 말씀하셨다. “**리안, 일어나라.**” 나는 “**조금 더 자고 싶어요**” 라고 말하곤 했다. 주님은 내게 물으셨다. “**네가 잠에서 얻을 수 있는 것이 무엇이나? 잠이 기름 부음을 낼 수 있느냐?**” 나는, “**아니요**” 라고 대답했다. 주님은 “**잠이 사랑을 만들어 낼 수 있느냐?**” 라고 물으셨다. 나는 또 다시 “**아니요**” 라고 대답했다. 주님은 “**이 모든 것이 어디에 들어 있느냐? 그것은 너의 기도에 들어 있다**” 라고 말씀하셨다. 나는 즉시 깨닫고 일어나 마루에 무릎을 꿇고 기도하기 시작하였다. 기도를 끊임없이 하는 동안 매우 강력한 기름 부으심이 내려왔다. 나는 그 기름 부으심이 매우 실제적으로 내려 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의 집에서 기도의 제단을 쌓아야 한다. 마지막 날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큰 축복을 주시기 원하시기 때문이다. 이것은 내가 여러 날 동안 문을 잠그고 주님께 기도할 때에 내게 말씀하여 주신 것이다.

주님은, “**지금은 기다리는 때가 아니다. 지금은 요엘서의 때이다**” 요엘서에 이렇게 기록하였다. “**그 후에 내가 내 영을 만민에게 부어 주리니;** 지금이 “그 후에” 라고 말한 때이다. 그러므로 더 이상 더 이상 기다리는 때가 아니다. 지금이 그때이다. 지금 하나님의 성령이 부어지고 있다. 그리고 주님은 이 마지막 날에 하나님께서 위대한 축복을 부으신다고 말씀하셨다. 그 축복은 물질적인 것이 아니라 마지막 때에 대한 계시를 말하는 것이다. 믿는 자들에게는, 교회 가 깨어 기도하면 그 결과로 마지막 때에 대해 알게 하실 것이다. 부흥이 한

번 오면 하나님의 나라는 곧 임할 것이다.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의 나라는 퍼져 나가게 될 것이다.

이제 우리는 마지막의 시간으로 들어 가고 있다. 당신은 우리 주님과 관계를 쌓는 데 더 많은 시간을 들여야 한다. 주님은 이 말을 모든 사람들에게 전하기 원하시고 모든 사람들이 깨어 기도하기를 기대하신다. 이것은 또한 내가 주님과 깊이 연합하기 위하여 골방에 들어가 지난 며칠 동안 혼자서 기도하는 동안 주신 것이다. 주의 성령께서 만민에게 부으셔서 우리 모두가 성령의 길로 동행할 수 있게 하신다. 만일 우리가 성령의 길을 따라 행하지 못할 때 우리는 넘어 질 것이다. 한 번 넘어지면, 세상의 가난, 질병, 재난, 그리고 불치병들은 계속 증가할 것이며, 당신은 마지막 때의 고통을 당할 것이다. 이것은 당신에게 매우 어려운 것이 될 것이다!

*Liyan's testimony was translated from Chinese to English by
Bonnie W., Samuel P. and Paul at Jesus Glory Ministries.
Contact: paul@JesusGlory.org www.i70x7.org January 2013
Illustrations added by Spiritlessons.com*

번역: 이 명주 (myongkim77@gmail.com)